로컬플러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펼쳐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 22일 3일차 감사일정을 마친 가운데 잘못된 점은 따끔한 질책과 함께 잘된 점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생산적인 정책 감사가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복남 의원은 지적 재조사사업이 시민에게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적 전문직 증원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김영자 의원(가선거구)은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이통장과 반장 수는 오히려 증가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윤진 의원은 주민과 만남의 날 행사 건의사항이 해를 넘기면 추진사항 점검이 중단되는데 처리가능한 건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주문하였다.

백창민 의원은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해 묻고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정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중국문화원, 미소책방 개관

부안군은 군민들에게 책을 통해 중국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코자 부안중국문화원내에 미소책방을 개관했다.

미소책방에는 중국역사, 문화, 중국여행지 소개, 중국어학습서적, 중국고대시, 중국드라마 DVD, 중국 원서 만화 등 중국 관련 서적 800여 권을 비치하고 있다. 부안군민이면 누구나 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안군 한동일 새만금 국제협력과장은 "이번에 개관한 미소책방을 통해 군민들이 중국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새마을지회, 112만원 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건식)은 22일 김제시 새마을지회(회장 김창수)가 2016년 녹색장터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112만원을 김제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써 달라며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제시 새마을지회는 매년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비닐, 폐농약병등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익금으로 추석명절에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음식을 만들어 전달하는 행사, 추운 겨울에는 월동맞이 김장 담그기 행사등을 통해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으며, 해마다 헌옷 등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녹색장터 운영 수익금은 김제 미래를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김제사랑장학재단에 기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22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법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권리 구제에 대해 심의 의결했으며 도움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 소명기회와 더불어 현장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해 총 17가구 25명에 대해 계속 보장 결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와 실직적인 가족관계 해체세대 및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등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생활실태와 가구 특성 등을 파악,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 으로 보호하고 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회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2017년 2월 중순부터 정읍과 인천국제공항 간 시외버스 운행에 대한 승인에 따라 매일 왕복 3회 시외버스가 운행된다.

정읍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간다

시, 내년 2월 중순부터 매일 왕복 3회 직항편 운행 예정… 주민 편익 증진 '기대'

정읍에서 인천국제공항 간 시외버스가 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7년 2월 중순부터 정읍과 인천국제공항 간 시외(직행형)버스 운행에 대한 승인에 따라 매일 왕복 3회 시외버스가 운행된다.

시는 보다 자세한 운행시간과 요금은 운수업체(호남고속)와 협의키로 했다며, 추후 확정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노선 신설에 따라 정읍은 물론 고창과 부안, 장성, 순창, 영광 등 인근 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노선 개통 소식을 접한 정읍시민들은 "이제 정읍에서 곧바로 승차표를 발권해 인천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게 돼 해외여행 시 시간과 비용을 제대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생기 시장은 "그간 인근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없어 불편했는데, 이번 정읍-인천국제공항 간 직행버스 노선 신설로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더욱더 탄탄하게 구축해 정읍시민과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이용할 경우 정읍역에서 인천국제공항행 KTX(2회)와 정읍-인천터미널 간 직행버스(3회)를 이용해왔다.

하지만 운행 횟수가 적고 시간대가 맞지 않아 환승에 따른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많은 이용자들이 인근 도시인 전주나 광주에 가서 버스를 타거나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등의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외버스 신규 노선을 신설키로 하고 그간 정읍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버스운송조합, 각 시도 그리고 운수업체 등을 방문하고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노선 신설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해경, 해양사고 '음주운항' 예방나서

다중이용선박 등 특별단속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습관형 음주운항 어선과 낚시 어선, 유람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 레저기구, 화물선 등 음주운항이 의심 되는 지그재그 운항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 단속에 들어갔다.

부안 해경서(서장 조성철)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국의 해상에서 실시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행위가 17건에 이르렀지만, 관내 해상에서 음주운항 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총 3건(충돌 2건, 좌초 1건)이 발생해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상에서의 생활습관형 음주로 인한 선박 음주운항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 '11년 12월 6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된데 이어, 14년 11월 19일에는 0.03%까지 대폭 강화된 것도 선박 음주운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부안 해경은 해상에서 선박 검문시 선박 운항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철저히 하고 해경 센터와 출장소에서 입출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조성철 부안해경서장은 "한층 강화된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술 한 두 잔을 먹더라도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지해야 한다"면서 "선박 음주운항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낚시 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 부안참뽕오디 활용 젤리미용팩 개발 집중

양잠산물 이용 젤리미용팩 제품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지난 22일 센터 회의실에서 양잠산물을 활용한 미용 팩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되는 이번 연구용역은 ㈜나우코스와 부안군이 지역특화작목인 부안참뽕오디를 바이오 제품 소재로 활용하려고 진행 중이며 연구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미용 제품을, 지역에는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안참뽕오디 젤리미용팩과 뽕잎 젤리미용팩 등 2종을 선보여 부안참뽕오디의 미용산업 진출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부안군은 지난 2005년부터 입는 뽕에서 먹는 뽕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국적으로 생 과용 오디붐을 일으켰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 가는 제2차 오디혁명의 주자로 먹는 오디에서 바르는 오디로 부안참뽕오디의 무한변신을 꿈꾸고 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안군은 누에를 활용한 그라주와 오디와 뽕잎을 활용한 미용 팩,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즉석 뽕 비빔밥, 뽕 디저트 개발 등 R&D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부안참뽕 6차 산업화를 위해 가공, 음식, 미용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성공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사랑의 김장김치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정읍시새마을회, 김치 나눔

정읍시새마을회(회장 박우서)는 정읍시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정읍시 공설운동장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2천여포기의 배추와 고춧가루 등 정읍에서 생산된 재료를 양념으로 정성껏 김장 김치를 담갔다.

이번에 담근 김치는 모두 500박스(박스 당 15kg), 지역 내 23개 읍면동의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사회복지 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읍시새마을회 박우서 회장은 "사랑과 정성으로 버무린 김장김치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겨울을 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읍시새마을회가 지역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요촌동 지역사회보장협 운영회의 개최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송해숙)는 23일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요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안건은 요촌동 희망나눔 한마당 행사 결과 보고 지역특화사업 추진 논의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인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요촌동 특화사업인 "얌얌행복과일플러스"제철과일나눔사업의 2차 지원대상자 선정여부와 내년도 지속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참석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3가구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들은 동절기 추위에 대비한 보일러 수리와 생계비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 될 예정이다.

요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만종 위원장은 "요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이 민관협력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해숙 요촌동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복지자원 발굴에도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위도면은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부안위도면, 산약초 등 불법채취 단속

예방안내문과 마을방송 등 홍보

부안군 위도면은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에들어갔다.

'고슴도치섬'으로 유명한 위도면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산물인 산도라지, 하수오, 더덕, 방풍 등이 풍부한 곳으로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 및 등산객 등이 임산물을 허가없이 채취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불법채취를 일삼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산림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산림내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위도면은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채취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채취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설치하고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신광교회는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취약아동세대, 지역아동센터에 백미 10kg 15포, 20kg 42포를 기증했다.

훈훈한 정과 함께 사랑의 백미 나눔

김제 신광교회 저소득층에 800여만원 상당

김제 신광교회(김찬홍 목사)는 23일 저소득계층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마련한 백미를 훈훈한 정과 함께 김제시에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한 백미는 신광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교인들이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정성스럽게 모금하여 마련했다.

신광교회는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취약아동세대, 지역아동센터에 백미 10kg 15포, 20kg 42포를 기증했으며 매년 설 과 추석명절, 성탄절에 저소득 가정에 800여만원 상당의 백미를 지원하는 등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찬홍 담임목사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오히려 감사하며 항상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은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행복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이 있어 연말 불우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활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